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이 승 역*

1. 머리말
2. 기록
 - 1) 물리적 실체에서 논리적 실체로
 - 2) 내용속의 배경에서 배경중심의 내용으로
 - 3) 단일 의미에서 복합 의미로
 - 4) 활동의 부산물에서 기억의 의식적 '작인(作因)'으로
3. 기록전문직과 기록보존소
 - 1) 기록의 전체 주기에 대한 개입으로
 - 2) '의도된 의미'들의 공동생산자이자 관리자
 - 3) 기록물 보관에서 의미의 보관으로
 - 4) 통치의 증거로부터 사회의 증거로
4. 기록관리의 '원칙 및 기법'
 - 1) 출처·통·원질서의 존중
 - 2) 평가 및 선별
 - 3) 분류·기술(記述) 및 보존
5. 맺음말

*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한남대 기록관리학협동과정 겸임교수
주요논저 : 「4·19 직후 李承晩·李起鵬일가 재산조사기록」, 『기록보존』 13호, 정부기록보존소 2000,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체제 전망」, 『기록학연구』 4 한국기록학회 2001, 「기록관리체제에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제도의 성격과 운영방향」, 정부기록보존소 평가분류 워크숍 발표문 2001. 12, 공동연구 : 이소연 외, 『ISAD(G)를 적용한 한국기록물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 기록연구원, 2002.

1. 머리말

기록관리 종사자들은 각 분야나 나라별로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자기록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기록환경’이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롯된 기록정보의 생산·유통·활용·관리상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면서 요인이기도 한 사회·문화적 변동의 상호작용 전반을 의미한다. 대체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는가 하면, 전통적인 기록관리에 새로운 변수를 대입하려는 노력 역시 꾸준히 계속되었다. 전자환경에 대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대응방책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존의 개념과 그것에서 비롯된 접근방식, 방법론, 패러다임, 철학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문제영역에서의 과제들과 병행될 때 좀 더 현실적인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¹⁾

- 기록정보 전체 존재주기의 관리와 관련된 개념 및 관념의 재검토
- 전자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원본기록의 생산 및 확인을 위한 법규적·기술적(技術的) 필요사항
- 무결함(integrity)을 지닌 전자기록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技術的) 필요사항
- 전자환경에서의 기록의 처리 및 검색제공에 관한 각종·각급 표준의 개발 및 운영
- 전자환경에서의 기록의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정치경제화

1) 한편으로는 현재 국제적으로 또 국가별로 각 부문·분야마다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의 성격 파악, 그러한 각 시도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및 미시적·거시적 전망의 판단 그리고, 각 시도들의 전체적 방향이 지닌 史的 성격에 대한 동시대적인지 등도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적 해석틀

- 전자환경에서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기록의 생산·조직·평가·보존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들을 재검토하려는 것이 본 글의 의도이다. 검토대상은 기록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기록전문직²⁾ 및 기록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록보존소, 그리고 기록관리에 관한 '원칙'과 '기법' 등이다. 이러한 검토대상들은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골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자기록환경의 변화된 조건의 대별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범주라고 판단된다.³⁾ 글의 서술은 전자환경을 계기로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글에는 전자기록환경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과 아울러 간접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전자기록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논점도 포함시켰다.

-
- 2) 기록전문직은 기록을 다루는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키비스트나 레코드메니저가 여기에 속하는 전형이 될 것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 공기록관리제도에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역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이라는 말은 다소 실용적인 개념이다.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전문영역은 정보학·고문서학·역사학 등 전통적인 분야 이외에도 기술 분야 등의 새로운 영역이 유력하게 포함되는 추세에 있다. 즉 기록전문직의 범위에는 특정 시대의 환경에서 비롯된 필요에 따라 기록관리분야에 부가된 다양한 영역이 망라된다. 그렇지만 '기록전문직'이라는 하나의 주·객관적 정체성을 지닌 동업집단은 그 다양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적을 기록정보의 보호 및 이용 그리고 傳承에 두는 기능적 공동체의 기초위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이외 검토대상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는 기록 이용자 및 생산 메커니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업무과정이 있으나 이 글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 기록

1) 물리적 실체에서 논리적 실체로

전자환경 이전의 기록은 대개 정보의 내용이나 구조가 모두 육안으로 확인 및 해독이 가능한 물리적 단일 매체에 표현되었다. 종래 기록 관리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는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 기록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전자기록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성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정보의 내용과 그 구조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읽는 방식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은 매체에 통합된 물리적 성격보다는 구조, 내용, 배경이 개별적으로 연관된 ‘논리적 실체’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의 관리는 현용(現用)단계에는 생산기관 그리고 준현용, 비현용단계에는 기록보존소라는 단계 구분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기록은 생산과 동시에 보존소의 저장여부에 상관없이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은 전통적인 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의 단계별 관리모형을 지양하고 ‘탈보관주의(post-custodialism)’와⁴⁾ ‘기록연속체(records continuum)’관리라는 방향을 낳았다.⁵⁾

기록을 논리적 실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정보의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4) ‘탈보관주의’는 말 그대로 기록물의 보관방식, 보관장소를 매개로 파악·관리하기보다는 물리적 장소에 관계없이 기록이 생산되어 존속되는 과정 전체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연속적 실체를 기본적인 관리대상으로 상정하는 관념을 말한다.

5) McKemmish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 Continuum of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Records Management Association of Australia 14th National Convention, Sept. 15-17, 1997*, 참조 [<http://www.rcrg.dstc.edu.au/publications/recordscontinuum/srnckp2.html>]

예산을 들여 양피지로 된 독립선언서 원본의 물리적 성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역사 유물의 보존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은 독립선언서 내용의 보증과 그 텍스트를 담은 물리적 매체사이의 관계 즉, 기록의 신뢰 보증과 최초의 물리적 형식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⁶⁾ 종이기록과 마찬가지로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최초의 기록 형식에 담긴 정보가 원본으로서의 신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전자기록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데이터이전이나 구동기기의 갱신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되는 기록관리의 환경에 대한 법적, 내용적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⁷⁾ 결국 이 모든 것은 전자기록 ‘원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체의 실질적인 기능요건과 함께, ‘증거를 담은 맥락(evidence-bearing context)’을 유지하는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로 귀결될 것이다.⁸⁾

2) 내용속의 배경에서 배경중심의 내용으로

6) Cox, *Closing an Era: Historical Perspectives on Moder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0, pp.114-121.

7) 전자기록의 신뢰성 창출 및 확인을 전통적인 문서학(diplomatics)에 입각해 모색하려는 InterPARES(전자시스템의 영구원본기록에 관한 국제 연구프로젝트)나 전자기록관리에서의 기능적 필요사항들에 대한 피츠버그대학의 연구프로젝트는 이같은 시도의 한 예이다. InterPAR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본의 조건을 갖춘 믿을 만한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곧 보존주체(preserver)가 그러한 기록의 ‘identity’를 정립할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 그러한 기록에 대한 ‘무결성(integrity)’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InterPARES Authenticity Task Force Team, “Authenticity Task Force Report”, p20.

[<http://www.interpares.org/book/index.htm>](2002.10.9)

8) Cook, Terry,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1, No.1 2001, p20.

전통적인 기록물관리에서도 배경정보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다만 내용중심과 배경중심을 구별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내용중심의 접근에서는 결과로서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며 비현용단계인 사후에 그러한 추론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배경중심에서는 기록된 내용에 우선하여 기록이 산출된 근거로서의 배경을 중시하는데, 여기에는 ‘사전에 관리되어야하는 배경’이라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기록관리에서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은 가치에 대한 거시적 접근에 기초한 기능평가론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이른바 ‘기능분석론’의 배경은 첫째, 분류학적(taxonomic) 가치론에 대한 비판, 둘째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기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목 셋째,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의 질적·양적 변화를 초래한 전자환경의 영향 등이다.⁹⁾ 우선 분류학적 가치론에 대한 비판이란 기록물에 내재된 가치를 개념적 범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증거가치나 정보가치 등 가치의 ‘서술상의 범주화(descriptive categorization)’가 기록에 담긴 사회적 역동성이나 조직의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통신시스템에 의존한 업무프로세스에서는 실제 업무활동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출기록에 업무과정 전반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업무의 주체나 이해관계자가 업무처리시스템과 접촉한 상호작용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전산기록이나 그러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킨 배경으로서의 법적·기능적 근거가 기록관리 초기단계부터 필수적인 관리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능적 근거

9) Baily, Catherine, "From the Top Down: The Practice of Macro-Appraisal" *Archivaria* 43, 1997, pp.89-128 ; Cook, Terry, "The Appraisal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PGI-91/WS/3, 1991, (paris UNESCO) [<http://www.unesco.org/webworld/ramp/html/r9103e/r9103e00.htm#Contents>]

는 기록의 생산 배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 전자기록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록의 생산 및 활용에 필수적인 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기록을 관리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종이 환경에서는 매체의 보존을 통해서도 기록 보존 전반이 실현될 수 있지만, 전자기록은 매체만 보존할 경우 정보를 읽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기록 보존에서 기술상의 조건은 기능적 배경과 함께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記述)정보이다.

이와 같이 기록이 산출된 기능적·기술적 배경이 기록물 내용과 함께 또는 그에 우선하여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 지닌 대별점이다.¹⁰⁾ 이는 곧 ‘결과로서의 기록’보다는 ‘과정으로서의 기록’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로부터 ‘기록되어야 할 과정’이라는 발상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생산된 증거’보다는 ‘계획적인 증거의 생산’을 통해 업무활동을 설명함으로써 그 책임성(accountability)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공공분야 레코드키퍼시스템 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기록은 사실의 단순하고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며 그 유지과정에서 1차적인 생산목적에서 비롯된 의미만이 남는 것도 아니다. 기록해야 할 대상이 정해지는 단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되는 단계, 또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이 처리되는 각각의 단계마다 기록이 일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된다. 이러한 개입에 대한 이해는 치우침 없이 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기록의 형식이나 거기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기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한 건의 기록이나 한 사회의 기록 전체나 그 분량에 관계없이 그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0)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21.

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배경들이 기록이 만들어지는 ‘암묵의 네러티브(tacit narrative)’를 결정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정보가 작성되어 처리되는 이면에는 이러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¹²⁾ 전자기록의 경우 종이기록과 달리 이 같은 내력에 대한 추론을 위해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기록관리자나 이용자가 배경적 기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프로그램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일 의미에서 복합 의미로

한편 근래 기록학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는 기록된 매체, 거기에 담긴 의미, 그리고 기록의 대상인 사실 그 자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것이다. 기록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생산단계에서 생산자가 의도한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란 기록에 담긴 대상의 표현을 말하며, ‘의도된 의미’란 그러한 표현에 담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을 뜻한다.¹³⁾ 최초 기록 생산자의 의도는 기록을 다

11)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s :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Vol.1, No.2 2001, 131-141, pp.136-137.

12) 기록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다음 용어들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Archivable: 기록될 만한(사회·문화·정치·기술적 요인에 의하여) 3) Archivalization: 생산 이전의 결정적인 요소들에 의해 특징한 인물, 사물, 현상이 기록화되는 것. 2) Archivation: 생산단계의 기록화과정 즉, 기록될만한 그 무언가에 대한 고려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선택되는 과정. 자세한 것은 케텔라르의 글을 참조하라.

13) 튜란티는 기록이 지닌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란 절대적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담긴 생산자의 성향이나 편견이 충실하게 반영된 상대적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대를 의식하여 가식된 기록은 불편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의식적 반성’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루는데 있어 훼손되어서는 안될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다양한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이 열람제공 업무에 반영되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생산 시점의 의미가 기록관리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중시되어야 할 기록의 의도된 의미는 생산시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기록이 처리될 때나 활용될 때도 발현된다는 것이 기록의 의미에 관한 탈 전통적 사고의 특성이다.¹⁴⁾ 즉 최초의 ‘새김(inscription)’과정뿐 아니라 ‘전달’, ‘맥락화(contextualization)’, 활용 등 생산자나 관리자 그리고 이용자의 개별적 선택과정에서도 또 다른 의도된 의미들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¹⁵⁾ 이 ‘의도된 의미’는 반드시 생산과정으로 회귀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개별적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 기록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과 기록 양자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의도된 의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¹⁶⁾

에 대하여 볼스와 그린은 그러한 불편부당성이란 비현실적인 것이며 현대 관료조직의 기록생산자는 애초부터 후대를 의식하여 일정하게 걸러진 왜곡된 사실을 남기는 기록자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 1994 : pp.328 - 344 및 Boles, Frank and Greene, Mark, A., “Et Tu Schellenberg? Thoughts on the Dagger of American Apprais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9, 1996 : pp.298 - 310. 근래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논점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특정 사실, 그에 대한 기록내용 그리고 기록에 투영된 기록자의 심리작용 등 세 가지를 구분함으로써 기록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Bearman “Documenting Documentation”, *Archivaria* 34. 1992, p.41.

15) Lemieux, Victoria L. “Let the Ghosts Speak: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the Record”, *Archivaria* 51, 81 - 111, 2001, p.109.

16) 이러한 인식은 존재에 대한 서구 현대철학의 인식, 특히 데리다의 사고로부터 영향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데아적 자기동일성 즉 사물의 유일한 의미로서의 지속적 회귀라는 전통 형이상학의 접근(기원의 추구)으로부터 벗어나, ‘차

이러한 ‘의도된 의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케텔라르(Eric Ketelaar)의 ‘의미계통(semantic genealogy)’이라는 개념이다. 그가 제기한 의미계통은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이 함의된 광범위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록의 복합적인 의미가 배열되는 동적(動的) 질서’이다.¹⁷⁾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의도된 의미’가 기록이 생산된 이후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연루된 주체들의 개별적 의도라면, 케텔라르의 의미계통은 생산이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폭 넓은 복합적인 사회적 의도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케텔라르에 의하면, ‘의미계통’은 그 자체가 이미 정해진 내용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계통에 접근하는 개별추론 또는 탐문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합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록은 결국 중간매개적이며 계속 변하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¹⁸⁾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의 복합적 의미로의 접근은 기록의 생산·처리·활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개념적 지침을 기초로하여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종이기록의 경우 다양한 의도된 의미는 별도의 특별한 전산시스템의 지원없이 기록처리자의 지적 과정을 통해서 또는 준비된 참고봉사 담당자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으로 적절히 해소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자기록의 경우 그 복합적 의미의 실현에는 전산으로 저장된 기록정보가 특정 형식으로 산출되도

이의 운동’에 의한 반복 흔적으로서의 자기동일성의 운동 즉, ‘差延運動’ 그리고 실체와 그것을 표상하는 개념의 2원적 관계의 궁극적인 해체(deconstruction)를 시도하면서 이데아적 기원의 부정을 중시한다. 데리다의 글로는 Derrida, Jacques, 1995, *Archives Fever: A Freudian Impress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Chicago & London)[英譯 Eric Prenowitz]이 있다. 데리다의 철학과 기록학문 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Cook, Terry, “Fashionable Nonsense or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pp.15-35를 참조.

17) Ketelaar, “Tacit Narratives”, 2001, p.141.

18)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10.

록 하는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전자환경의 기록관리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기록에 관한 사회적 의도의 기술적 구현’ 또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의도의 창출 및 보다 정밀한 실현’이 될 것이다.

4) 활동의 부산물에서 기억의 의식적인 ‘작인(作因)’으로

일반적으로 기록은 사회와 개인의 기억을 구성하는 주요한 근거이자 이른바 ‘전조(前兆; prologue)로서의 과거’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기록을 단지 활동 결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는 기억과 예견을 위한 기록의 동적 기능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순한 부산물이라는 인식을 넘어 필연적인 사회적 배경의 인식, 능동적인 사회적 기억의 형성 나아가, 의식적 실천의 매개로서의 기록의 의미를 중시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비롯된 동시대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전승해야 한다는 것이 근래 제기된 입장이다.

전자기록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이러한 사고가 대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전자기록환경에서 보다 심각해진 기록유산의 유지 및 전승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기록정보로 형성되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기억을 이해하고 그것이 다른 사회적 기억의 유인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주목하게 한 간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워드(Frank Upward)는 기록연속체 모델을 통해 의미 있는 관념을 제기하였다. 그의 기록연속체 모델에 의하면, 연속체의 4개 차원 중 4번째 ‘복수화(pluralizing)’는 모든 하위 차원들이 중첩된 가장 포괄적인 차원인데, ‘복수화’란 기록이 개별 기관이나 영역의 선을 넘어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는 의식적·무의식적 과정을 의미한다.¹⁹⁾

19) 업워드는 Recordkeeping, Evidence, Transaction, Identity의 4개 축과 Create, Capture Organize, Pluralize의 4개 차원이 중첩된 것으로 기록연속체를 묘사하였다. 4개 차원은 기록이 처리되는 국면의 차원을 구분한 것으로 복수화는 4차원이 중

여기에서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은 기록된 정보로부터 복합적으로 의도된 의미들이 의식적 과정을 거쳐 구성되고 발현되는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자환경에서 기억을 위한 기록의 목적의식적 조직화는 보다 중요하다. 전자환경에서 기록의 생산은 이전 시대에 비해 기술적으로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지만 보존관리차원에서의 상황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나 개인 할 것 없이 과거 종이기록 시대에 비해 양산된 기록을 조직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별 다른 진전이 없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였다. 전자환경에서 만들어진 기록정보 전체가 상호연관성이나 전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정보를 생산하는 모든 개별 영역에 생산·조직·처리·보존·검색제공이 일체화되어 있으면서 일정하게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간의 교호(交互)를 가능하게 하는 사슬고리가 각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사슬’은 사회의 집합적 기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또 유지하는 체제나 문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근거 기초가 될 것이다.

3. 기록전문직과 기록보존소

1) 기록의 전체 주기에 대한 개입으로

기록전문직의 역할범위를 기록의 평가선별이나 보호는 물론, 생산단

첨된 가장 포괄적인 차원이다. 업워드의 기록연속체 도해 및 설명은 이승영, 「한국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체제 전망」 『기록학연구』 제4호, 2001, 31~62쪽, 46~48쪽 참조.

계 및 그 이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상당수 국가의 공공 기록정책에서 받아들여지는 추세에 있다. 생산 전후를 포함하여 기록이 존재하는 전 단계에 기록전문직이 개입해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은 전자화된 기록환경에서 다양한 차원의 기록 관리단계가 전반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랜드-스위트랜드(Anne J. Gilliland-Swetland)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다중매체에 중복 보관되는 자원(multi-repository resource)을 특성으로 하는 디지털자료 환경에서 각 전문직 공동체와 정보생산자는 새로운 ‘메타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막대한 양의 디지털자료가 온전하게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 아키비스트는 정보생산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록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그러한 시스템에는 보존기술과 프로세스의 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⁰⁾ 물론 공동체간 연계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각 전문분야의 독자성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기록 라이프사이클 전체가 관할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록전문직은 기록정보를 다루는 메타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²¹⁾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의 생산과 유지 전반에 기록전문직이 개입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실

20) Gilliland-Swetland Anne, J., *Enduring Paradigm New Opportunities: The Value of the Archival Perspective in the Digital Environment*.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Washington D.C, 2000, p1 ; p3.

21) 호주의 DIRKS(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RecordKeeping System) 메뉴얼은 공식성 차원과 기술적 차원의 레코드키퍼시스템 설계를 기록전문직이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려고 모색한 사례이다. DIRKS메뉴얼에 관해서는 이승억, 한국공공분야 기록보유체제, 2001, 55~57쪽을 참조할 수 있다. DIRKS의 내용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ISO15489에도 반영되었다.

현한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는 생산단계부터 - 또는 그 이전까지 포함 - 기록이 기술적으로 하나의 전일화된 키퍼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향과 관계 있다. 이 두 가지 함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공공기록관리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증거의 생산에 개입하는 기록전문직이라는 발상은 단지 기록관리시스템 설계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록이 사회의 집단적 기억의 구성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기록전문직의 몫이다. 따라서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관리체제 설계자로서 기록전문직은 기록의 수동적 보호는 물론 실질적으로 사회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기록 생산 시점이나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며 자연히 조직이나 집단에서의 행위나 문화, 기록관리정책, 시스템설계 전반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²⁾ 기록전 주기에 대한 관리와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계가 전자통신분야의 기술 발달로 가능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설계는 기술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영역에 전통적인 기록전문직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²³⁾

2) ‘의도된 의미’들의 공동생산자이자 관리자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이 존재하는 주기 전체에 관여하는 기록전문

22)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4 · p20.

23) 이와 관련하여 김익한은 명지대학교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인 ‘My iweb’에 대한 시스템사례분석에서 ‘생산전문영역과 관리전문영역의 동적 관계’에서의 ‘전자기록물관리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김익한, 「EDMS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기록학연구』 5, 2002, 3~37쪽. 27쪽.

직은 불가피하에 기록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록의 복합적인 의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록전문직은 특성상 스스로가 하나의 의도된 의미를 만들어 내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록이 지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의 배경과 내용을 파악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기록전문직이 기록의 전체주기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곧 기록전문직이 의도한 의미가 기록의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를 실현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결국 기록전문직이 보이지 않는 배후로서 자신의 의도는 배제한 채 생산에서 비롯된 기록의 자명한 의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을 기록의 복합 의미의 확인과 실현

24)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 기록의 예를 들어 보자. 농지개혁과 관련된 기록은 입법 및 정책입안·예비조사·분배 및 피분배·상황 및 보상·기타 행정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기록 생산자는 국회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이며 활용자는 행정 및 민원·소송 처리 공무원, 피분배 및 분배관련자 그리고 각 분야 연구자가 될 것이다. 농지개혁기록의 형식과 내용구성은 1차적 목적인 농지개혁 추진에 상응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용자는 생산목적과 구별되는 용도를 가질 수도 있다. 동일한 기록을 놓고 공무원, 지주, 농민, 기타 각종 연구자들은 정책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이나 토지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증빙에서부터 거시적인 통계상의 경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를 찾는 의도가 반드시 1차적 생산목적으로 회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다양한 의미들은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즉 기록 처리과정에서는 다양한 용도에 반영된 ‘의도된 의미’에 비추어 어떻게 레벨을 분류하여 어디까지 기술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粒度(granularity)’로 기술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입법 및 정책입안과 관련된 기록은 주제파일이나 시리즈별 분류하여 개요목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분배 또는 상황대장은 개요기술보다는 한줄 한줄의 항목들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분류·기술영역만이 아니라 수집이나 평가 또는 보다 상위의 정책레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기록전문직은 스스로 절대적 객관성을 가질 수 없지만 기록관리 전체주기에 관여하면서 기록의 의미 전반을 확인·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을 목적으로 한 또 하나의 의도된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록에 관한 공동 생산자 또는 ‘공동작성자의식(co-authorship)’이다.²⁵⁾

기록의 다양한 ‘의도된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시간과 공간을 거치는 동안의 다양한 매개과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영향들을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혼재하는 무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록전문직은 자신의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매개과정에서 의미의 상호작용을 분별하고 그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

콕스(Richard Cox)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아카이비스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문서화하여 기록이 처리된 맥락을 전승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⁷⁾ 아카이비스트를 포함하는 기록전문직이 의도한 의미는 단지 평가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기록관리 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현될 것이다. 기록화된 기록전문직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기록에 부여된 의도된 의미의 하나이면서, 당대에 기록 전반이 어떻게 만들어져 다루어졌는지 또, 궁극적으로 기록들이 어떻게 사회적 기억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일종의 비망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기록환경에서 이 같은 기록전문직이 의도한 의미의 ‘도큐멘테이션’은 기록관리의 보다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3) 기록물의 보관에서 의미의 보관으로

기록보존소는 기록물의 보관처로서 연구자들과나 그밖에 많은 이용자들이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이다. 또한 기록보존소는

25) Lemieux, “Let the Ghosts Speak”, 2001, p111.

26) Lemieux, “Let the Ghosts Speak”, 2001, p110.

27) Cox, *Closing an Era*, 2000, pp.113~114.

기록전문직이 소장 기록들을 일정한 원칙과 특성에 따라 분류한 배열 질서가 반영된 각종 검색도구를 만드는 곳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기록물의 물리적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기록보존소에서의 기록물 분류작업은 그 지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장소로서의 물리적 조건이 전제된 것이다. 내용에 의한 구분은 물리적 위치나 배열질서속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록물 처리에 관한 통용되는 각급·각종 표준은 산재된 기록보존소간에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일 뿐으로서 개개의 기록물관리기관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따로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

보존과 이용을 위한 장소 또는 시설로서의 기록보존소의 특성은 ‘탈보관주의’에 의해 상대화되기 전까지 당연시된 전제였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점차 거의 실시간에 장소의 제약없이 유통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진보가 기록관리에서의 ‘탈보관’ 개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상을 낳았던 것이다.²⁸⁾

탈보관주의의 구상은 단지 전문적인 기록보존기관 사이의 연계만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탈보관주의에 기반한 기록현실에서는 일정한 표준에 따라 설계된 각 생산단위의 레코드키퍼시스템들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관리단계나 물리적 상태에 상관없이 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즈(기록보존소)가 아니라 ‘아카이빙’이며,²⁹⁾ 기록보존소는 수많은 레코드키퍼 시스템의 그물망에 기초하여 물리적 보관여부에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기록정보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의미의 보관처 또는 안내처가 된다. 만약

28) ‘보관주의’의 비판에 관한 초기 주장은 Bearman, David, “An Indefensible Bastion: Archives as Repository in the Electronic Age”, David Bearman ed., *Archival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1991, (Pittsburg) 참조.

29)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4.

이러한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기록관리의 기본관념에서는 보존에서 ‘접근(access)’으로 중심이동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³⁰⁾

4) 통치의 증거로부터 사회의 증거로

기관으로서의 기록보존소는 대개 보존소를 부설한 모 기관의 이해나 특정한 전통 및 법률의 취지에 따른다. 국립기록보존소는 정부 조직의 일부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각 정부기관의 업무참고나 감사 그리고 소송같은 권리보호에 관한 서비스가 1차적 기능이다. 정부에 대한 기여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외에 국립기록보존소에는 국가나 민족 등 공동체를 상징하는 기록들을 보존하는 역할이 부가되어 왔다.³¹⁾ 국민적·민족적 통합이나 그 기원이 표현된 기록, 개척시대 또는 건국의 기록, 기념할만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기록, 그리고 역사적 법규나 조약문서 등이 그러한 상징화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은 국가의 통치나 행정에 관한 자료이자 동시에 그러한 통치의 기원과 과정에 대한 공동체구성원의 집단적 의미 부여를 위한 근거자료였던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기록은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증거이자 사회전반에 관한 연구에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국가기록의 이 같은 활용범위는 정부의 규모나 활동범위와 무관하지 않다. 즉 방대한 국가기구가 폭넓은 영역에서 행정행위를 수행할 경우 거기서 생산된 기

30) Menne-Haritz, Angelica, "Access: The Reformulation of an Archival Paradigm", *Archival Science* Vol.1, No.1, 2001, pp. 39-55

31) 구미에서 국립기록보존소의 설립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Peterson, Trudy H., "The Nasty Truth about Nationalism and National Archives", 제5차 동아시아기록보존협의회, 2001 (ESTICA : East Asia Regional Branch of ICA)총회발표문(9.19 서울). 번역문은 『기록학연구』 4(이상민 역) 197~212쪽.

록들은 자연 정부활동의 증빙자료가 됨은 물론, 동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연구자료인 것이다.

근래 들어 정보자유화 움직임에 따라 국가기록에 대한 수요는 정부 기관이나 전문연구자 이외에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록전문직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하며, 기록보존소 역시 그러한 상호작용의 증거가 되는 기록의 보관처가 되어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성이 있다.

한편 국가기록에 관한 의식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양상과도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으로 근래 대두된 것이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거버넌스의 의미는 정부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시민사회의 다원적인 주체들이 과거 국가의 배타적 영역이었던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적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협력적 통치환경의 조성에서 공간적 제약울 초월하는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구조형성이나 각각의 의사표시는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전자통신환경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사회에 대한 국가의 영향, 정부 및 관료체제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들에 관한 증거의 관리를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은 정부의

32) 원래 지배, 통치, 관리라는 의미를 지닌 ‘거버넌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은 1990년대 이래 세계화·정보화·신자유주의 확산 및 국가의 축소에 의해서였다. 즉,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정보화에 의해 국가 사회, 기업의 운영주체 간의 관계가 변동되는 한편, 이러한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이 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제체제나 市場, 그리고 정보네트워크로 조직된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포진한 시민사회가 축소된 정부활동의 기능을 대신하는 ‘협의·협력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2000, 33~47쪽.

통치기록만이 아닌 바로 ‘거버넌스에 관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며 나아가 그러한 기록이 생산·조직·보존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기록전문직과 기록보존소가 국가주의적 관점의 역할로부터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³³⁾

4. 기록관리의 ‘원칙 및 기법’

1) 출처·풍·원질서의 존중

프랑스대혁명 이래 구미에서 확립되어 온 기록관리에 관한 원칙은 현재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원칙들이 현실에 무리없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전자기록환경의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기존 원칙들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위상에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³⁴⁾

이른바 출처, 풍 그리고 원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적 관점은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입장이 존재하는데, 출처를 최상위 레벨로 하고 풍을 그 외적 차원으로, 원질서를 내적 차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것으로서 풍 개념을 보는 입장도 유력하다. 또 한편 출처나 풍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현재로서는 출처나 풍의 정확한 관계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

33) 기록학에서의 거버넌스의 의미에 관해서는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p.18-19.

34) Ribeiro, Fernanda, “Archival Science and Changes in the Paradigm”, *Archival Science* Vol. 1, No.1 2001, pp.295-310.

이 아니다.³⁵⁾ 그렇지만 많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생산자가 상이한 기록은 서로 섞이면 안된다”라든지 “한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은 함께 보존해야 한다”라는 출처나 품을 존중하는 주의는 여전히 기록관리 실무에서 영향력을 가진 원칙이다.

출처, 품, 원질서의 존중은 기록이 만들어진 단계의 관련 조직이나 기록의 구성 질서에 관한 것이 기록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정보라고 간주하는 관념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원칙들은 새로운 전자기록환경에서도 무리없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처주의나 품 또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기록생산 및 이용, 관리환경에 어떻게 조응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록환경과 탈전통적인 전자기록환경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전통적 기록환경과 전자기록환경의 특성비교

전통적 기록환경	전자기록환경
· 장기간 직제의 변동이 없는 환경에서 · 상대적으로 독자운영되는 · 피라미드식 수직적 계층조직에서의 업무 활동 중 생산된 · 물리적으로 편철· 정리되는 기록	· 수시로 변동하는 직제환경에서 · 업무범위가 탄력적인 임시 단기프로젝트별로 운영되는 · 수평적으로 연계된 다수의 팀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업무프로세스에서 생산된 · 가상공간에 파일링· 저장되는 기록

오랫동안 커다란 변동이 없는 조직이나 독립적으로 업무가 운용되는 경우 안정적 출처나 품의 형성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관료조직이나 고정적 파일링은 생산 당시 형성된 기록물의 계층성이나 질서의 유지를

35) 설문원, 「새로운 기록관리환경에서의 “출처정보”관리방안 연구」(미발표논문) 2002, 5쪽.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원칙은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³⁶⁾

전자기록환경에서는 조직적 실체로서의 출처나 품 대신 ‘기능적 출처’나 ‘가상 품(virtual fonds)’개념이 등장하며 또 물리적 원질서 대신 전자기록시스템에 의한 개입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맨해리츠(Angelica Mene-Haritz)는 출처원칙에 대한 재검토에서 ‘공통의 기능적 유래’에 기반한 출처원칙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그녀가 지적한 공통의 기능적 유래는 조직이라는 원칙보다는 기초적 목적을 분석하고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출처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⁷⁾

쿡(Terry Cook)의 경우, 새로운 개념에 의한 출처·품·원질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먼저 출처는 ‘기록이 만들어진 기능과 과정들, 조직의 변천 및 클라이언트들과의 상호관계, 상이한 조직들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으면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단기간 존속하는 조직에서, 해당 구성원과 그들이 하는 작업사이의 독특한 상호작용이나 관행 및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적이며 탄력적인 개념’이다. 또 한 품은 ‘기능과 활동의 배경에 초점을 둔, 동적(動的)인 복합작성자의 식이 투영된 가상 관계로서의 실재(virtual relationship reality)’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질서 개념은 ‘시스템에 저장된 각각의 개별 기록들이

36) 미국의 레코드그룹이나 호주의 시리즈시스템은 단일출처의 품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레코드그룹’의 구성은 조직 규모, 기록물 분량, 기타 내용관련성을 고려하여 아키비스트가 임의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호주 시리즈시스템은 기술의 기본단위를 시리즈로 상정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빈번한 정부 조직변천에 의해 단일 출처에 기반한 기록물 품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7) Mene-Haritz, Angelica, “Appraisal or Selection Can a Content Oriented Appraisal be Harmonized with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1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2-3 sept). 1993, p126.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상이한 이용자들의 목적에 따라, 내용상으로 또는 기능상으로 다양한 배열로의 결합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적 개입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물리적 배열보다 복합적인 활용이 투영되어야 하는 것'이었다.³⁸⁾

이와 같은 선상에서 네스미스(Tom Nesmith)는 좀더 포괄적으로 새로운 개념에서의 출처가 기록의 존재나 특성 그리고 지속적인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의 생산·전달·해석에 관한 사회적·기술적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³⁹⁾

2) 평가 및 선별

초기 미국 연방정부 기록에 대한 평가는 가치있는 것을 선별한다는 접근이라기보다는 가치가 없음이 자명한 기록을 폐기한다는 발상이었다.⁴⁰⁾ 1930년대 이래 웰렌버그를 필두로 하는 국립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에 의해서 긍정적 기준으로서의 기록물가치에 관한 범주가 설정되었다. 반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른바 '증거가치'와 '정보가치'는 여전히 유용한 기록가치의 산정을 위한 준거이다.

1970년대 들어 가치개념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에 의해서는 사회의 진면목을 반영한 평가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록에 의한 사회나 현상의 상징화라는 것이 평가가 추구하는 중심 내용이 되었다. 그렇지만 문서화전략 사례처럼 기록을 통하여 사회를 주제별로 표상하는 것은 현실조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서화 주제인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이 배제되기도 힘들었다.

38)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p.21 - 22.

39) Nesmith, Tom, "Still Fuzzy, But more Accurate: Some Thought on the 'Ghosts' of Archival Theory", *Archivaria* 47. 1999, pp.140 - 141.

40) Cox, *Closing an Era*, 2000, p98.

‘거시적 기능평가’는 분류학적 가치론과 문서화전략의 ‘내용중심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성립하였다. 기능평가론은 그 생산근거나 과정의 배경적 이해를 기록된 내용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중시하는 가치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쿡은 이를 ‘주제로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배경의 전말(contextual narrativity)에 기초한 사회이론을 통해 평가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⁴¹⁾ 전자기록환경에서의 평가에서 이전과 달리 주목해야 할 것은 활동과정 전반에 대한 증거가 항상 기록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가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산출된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생산의 근거를 포착함으로써 기록에 의한 증거 이면의 보다 근본적인 증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지향의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별이다. ‘내용 지향의 평가(content-oriented appraisal)’는 본래 일정한 차등화된 가치기준에 의거한 선별을 전제로 하는 평가이다. 반면 ‘증거 지향의 평가’에서는 선별을 위한 차등화된 가치는 내용지향 평가에서만큼 중심적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의 기능적 접근의 평가에서도 가치 기록의 선별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아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기록정보가 양산되는 환경에서 선별은 근본적으로 정보저장 기술의 발달이 대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평가선별에 관한 논의는 전자기록환경에 관한 논의에서 독립 주제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요인은 우선, 문서화이론에 관한 논의의 진전이 미미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평가선별을 기술적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기술적 낙관론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가선별이 기술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41)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23.

고비용의 전산설비에 대한 과도한 비용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겨진 기록의 양과 그 효용가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관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자기록환경에서의 평가선별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원칙 및 기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증거지향적 평가’에서의 가치 개념을 추구한 맨해리츠의 ‘목적으로 통제되는 의미(purpose-directed meaning)’는 전자기록환경에서의 평가문제에 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정식화된 절차상의 기준 및 표준으로 규정되는 가치 즉, 목적을 지향한 의미가 ‘증거지향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⁴²⁾ 여기에서 증거는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었다.

3) 분류·기술(記述) 및 보존

기록의 분류·기술 및 보존은 생산목적 그 이상의 계속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에 관한 원칙과 기법의 상당부분은 기록의 처리과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자기록환경에서 비롯된 변화에 의해 그러한 원칙과 기법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전자기록환경 이전, 기록의 처리는 우선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출처나 원질서를 존중한 분류 및 기술이란 다른 아닌 기록 생산시의 근원적 정보를 파악하여 물리적으로 배열하고 기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통적 기록관리와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처리 및 보존의 특성에 관한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2) Mene-Haritz, "Appraisal or Selection", 1993, p126.

〈표 2〉 전통적 기록환경과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처리·보존의 특성 비교

전통적 기록환경	전자기록환경
· 고정된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물 · 기록물생산단계의 구조와 질서의 유지 · 기록물출처 및 내용정보를 결합한 기술(記述) · 기록물 생산시의 물리적 원형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이 조직하는 다양한 배열을 용인 · 생산배경을 포함하는 기능상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술(記述) · 정보의 유지를 위한 매체나 프로그램 및 장비의 지속적 변환을 모색

단일한 출처 그리고 그 하층 부서조직과 단위활동은 기록의 면에서는 품과 각각 하부 시리즈로 계층을 이루게 되며, 그에 따라 기술 역시 그러한 특성을 따르는 체계가 된다. ICA(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의 ‘국제기록물기술일반표준(ISAD[G]: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General]’은 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ISAD(G)는 하나의 완결된 품을 정점으로 시리즈-파일-이이템이 계층을 이루고, 그 구조 속에 출처정보와 내용정보 및 관리정보를 담은 기술요소들이 배열되는 체제이다. 출처정보와 내용정보에 관한 기술요소들은 이러한 품 기술의 계층에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술시스템은 현대 조직의 특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자적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역시 떨어트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⁴³⁾ 실제로 나라에 따라서는 출처가 중복되는 이른바 ‘복합출처’로 인해 기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기도 하였는데, 호주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겪으면서 품 중심을 지양하고 시리즈를 기본 기술단위로 하는 한편, 기록물과 배경에 관한 통제를 분리하여 양자를 동적으로 연결시키는 CRS(Commonwealth Records

43) 설문원, 「출처정보 관리방안 연구」, 2002, 9쪽.

Seriese)시스템'을 개발하였다.⁴⁴⁾

아직까지 전자기록환경에서의 기록물 처리에 관한 원칙수준의 합의는 성립되지 못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볼 수는 없다. 대체로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정리·기술의 방향은 쿼리 지적했듯이 기록의 물리적 실체나 그룹핑에 집중하기보다는 관련된 시스템의 다큐멘테이션과 기록생산자로부터 비롯된 기능메타데이터를 기록물기술도로 통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기록생산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관한 배경적 이해를 풍부화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⁴⁵⁾

보존 역시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

44) 호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검색도구가 작성될 수 있는 마치 레고블록과도 같은, 개념 및 증거의 단위요소들로 짜여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일정한 제한이나 표준이 충족되지만 그 산출 유형을 미리 규정하지는 않는 일정한 융통성을 두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의 구상은 전자기록환경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보라. Cunningham, Adrian, "Dynamic Descriptions : Australian Strategies for the Intellectual Control of Records and Recordkeeping Systems", symposium by the Royal Society of Archivists of the Netherlands to honour the centen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Dutch Archives Manual of Muller, Feith and Fruin, Amsterdam, 23 October 1998. [<http://www.naa.gov.au/recordkeeping/control/strategies>]. 한편 호주의 총체적 기록관리체제의 일부로 개발된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for Commonwealth Agencies"는 기록물의 지적 관리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기존의 국내·외 표준들과 호주정부의 정보검색서비스 등 다른 영역들과 호환되고 동시에 작동가능하도록 설계하려 한 시도이다. 기존 기록물 기술요소의 내용을 충족하는 메타데이터 체제가 기록물관리를 포함한 각 영역간 연계고리로서 하나의 총체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 메타데이터표준에 대해서는 커닝햄의 글과 함께 이소연 외, 『ISAD(G)를 적용한 한국기록물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서울). 2002, 65~67쪽을 참조할 수 있다.

45)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p.22 ~ 23.

운 접근을 모색하더라도 전통적인 수리와 복원은 기존 구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수정하지 않은 진본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록보존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기록의 경우 그 특성상 장기간 보존을 위한 일정한 변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자기록환경에서 보존의 본령은 물리적 특성의 유지나 보호라는 목적과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가상의 기록이나 가상 폼에 담긴 상호관계와 개념을 계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에뮬레이션’하고,⁴⁶⁾ 또 그 과정에서 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⁴⁷⁾

5. 맺음말

전자기록환경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의 지원없이 생산은 물론 기록 정보를 조직하고, 읽고, 전달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기록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록에 대한 인간의 지적 의도 역시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 종이기록시대의 생산, 검색도구

46)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2년 표준(ISO 14721)으로 채택한 ‘OAIS참조모형(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은 디지털자료의 보존 전략을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및 ‘에뮬레이션(emulation)’ 기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마이그레이션이란 데이터를 새로운 용기(매체)로 옮기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Refreshment’, ‘Replication’, ‘Repackaging’, ‘Transformation’등으로 세분된다. 이에 비해 에뮬레이션은 데이터 변환이 아닌 원래의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의 운용을 그대로 ‘흉내내어(emulate)’ 읽어 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소연, 『디지털 아카이빙의 표준화와 OAIS 참조모형』, 『정보관리연구』 33권 3호. 2002.

47)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2001, p23.

개발, 물리적 배열을 위한 설비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자환경에서는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록과 관련된 무수히 다양한 인간의 지적 작용들을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계획적인 목적의식의 추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목적의식의 실현은 일단 기술(技術)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기록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그리고 이용자의 지적 의도가 그러한 실현을 위한 의식적 준거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기록의 다양한 의도된 의미의 갈래를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물론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전문가들이 파악한 기록의 다양한 의미가 기록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그 과정 전반을 기록화하는 것은 전자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록정보에 투영된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좀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불가결한 일이 될 것이다. 기록의 실체적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록전문직과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의도의 반영과 그 문서화를 위해 우선 해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자환경에서 전통적인 기록전문가의 역할 범위가 단순히 위축될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이상의 점에서 일면적인 판단이다. 아키비스트를 정점으로 하는 독자적인 기록전문가의 위상과 역할을 다소 배타적으로 중시해 온 입장은 기록-기록보존소·기록전문직-기록관리 원칙·기법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기본 골격을 유지시킨 핵심 관념이었다. 네트워킹화된 전자기록환경에서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된 기록정보 영역들간의 개념적·실체적 연계와 호환성 그리고, 가상차원을 포함한 관련 공동체간의 통합된 구조의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는 일이 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전문직 역할 및 위

상을 가늠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관건은 그러한 조건들을 확인하여 합의의 도출하고, 합의에 따른 실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능력 여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선은, 전자환경에서 일정하게 변동될 기록관리 체계의 기본골격 및 그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기법이나 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해 보다 현실 제도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에 의한 기록생산 및 관리는 전자환경이전 확립된 전통적 기록관리 관념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등록제도만 하더라도, 보존소 이관 후의 풍단위를 집합적으로 기술하는 방식과 달리 이관 이전의 생산단계에 기술요소의 골자가 작성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술원칙과 거리가 있다. 기록물분류기준표체도는 기록물이 아닌 업무에 기초한 분류체제로서 기능분석에 의거한 기록관리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공기록법에 규정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정보의 내용 및 위치안내 센터로서, 지방기록보존소·각급 자료관·비정부 공공기관의 기록관, 나아가 각 기록생산단위의 기록관리시스템들과 연계된 가상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전통적인 보관소의 기능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새로운 법규의 운영이나 제도의 거시적 전망을 위해서 전자기록환경에서의 개념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전자기록환경에서도 여전히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활동의 증거들이 생성될 것이며, 사람들은 삶 곳곳에서 기록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믿을만한 전자기록을 생산·활용하고 있는가? 또한 조선왕조실록이나 반세기전 국무회의록을 현재 의심없이 볼 수 있듯이 지금 생산된 전자기록을 수십, 수 백

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행정적·법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장기적으로 해당 시대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기록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기능이다.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을 재검토하는 것은 변동중인 상황을 전환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여전히 바뀌지 않은 기록과 인간사회간의 본질적 관계를 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재구축하고 보다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Conceptual Shift of Archival Management in Digital Environment

Lee, Seung-eok

Electronic environment affects archival community to a great extent. It redefines virtually every stage of archival management from creation to current and semi-current use, to appraisal, and to preservation of records. Faced with the problems caused by ever increasing electronic records, the community is forced to reconsider traditional concepts, approaches, methodologies, even the basic paradigm embedded i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The present paper discusses the need to reexamin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archival management in the light of digital environment. It also urges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the archival profession, or the archival community at large, to participate in this critical enterprise. Success in this endeavor will, eventually, pave the road toward creating, organizing, providing access to, preserving reliably and authentically electronic records and designing proper system for the societal collective memory in recorded digital information